

# ‘포유자돈의 육성’



윤 덕 영  
(덕영종돈장 대표)

양돈을 경영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며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제일의 요소는 어떻게 생산된 자돈을 실재없이 상품인 비육돈으로 만들어 출하하는데 달려있다.

가장 기초가 되고 손쉬운 일이지만 쉽게 지나쳐서 실패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필자의 농장에서 실제로 행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나열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분만초기 관리요령

① 분만즉시 견치(송곳니)를 절단하고 잘린 부위로 세균의 침투가 우려되니 항생제 0.5ml를 비강(콧구멍)에 넣어준다.

② 체중을 꼭 달고 생체중이 800g 이하인 것은 산자수에 구애없이 도태시킨다.

③ 분만후 보온상자에 10~20분 경과후 양수가 건조되면 분만중이라도 즉시 포유시킨다.

초유 급여 시간이 길어지면 모돈의 면역항체 이행이 늦어져 허약자돈이 되기 쉽고 모돈의 분만 시간도 길어져 모돈 또한 지쳐서 분만후 회복이 늦어진다.

④ 분만이 완료되면 모돈에게 자궁세척을 해준다. (초산돈일 경우와 여름철 분만돈들은 자궁이나 산도(질)에 상처로 인한 내막염 증상으로 화농되기 쉽고 이로인해 이유후 발정재귀율이 떨어지고 번식불량돈이 되어 도태율이 높아진다).

### ● 자궁세척요령

① 물 1,000~2,000ml + 소금 10~14g을 100℃ 이상 10분이상 끓인다.

② 끓인 물을 40℃로 식힌다. (분만시 모돈 체내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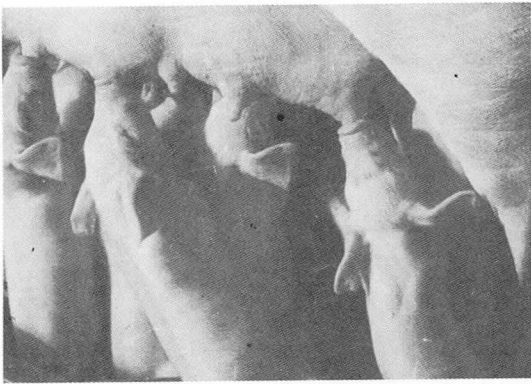
③ 40℃로 식힌물에 페니실린 400만 단위를 용해시켜 1회 세척(세척기명 - 이네마 시린저)한다.

④ 40℃로 식힌물에 베타딘세액 40ml 혼합액으로 2~4회 반복해서 세척해 준다.

⑤ 포유두수 결정 - 포유두수가 모돈의 포유능력 이상으로 많으면 자돈의 발육이 고르지 못하고 체력소모로 인해 다음 번식성적이 떨어지므로 모돈의 영양상태, 비육능력, 젖꼭지수 등을 고려하여 모돈 체중 20kg당 1두 정도로 포유시키도록 하고 도태하든지 양자를 보내든지 하여 고른 두수가 포유되게 해야겠다.

⑥ 포유요령 - 분만 직후 자돈은 사지가 약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이니 완전히 자기 젖이 고정될 때까지 어렵더라도 2일 정도는 보호해서 포유시켜야 한다. (약하고 적은것은 앞 젖에서부터 포유시킴).

⑦ 양자요령 - 분만후 모돈이 사고가 생겼거나 산자수가 많을 경우 분만시기가 비슷한(3일~



4 일차) 다른 모돈에게 양자보내 위탁 포유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분만돈의 초유를 꼭 먹인뒤에 가급적 체격이 좋은 자돈을 야간에 잠이 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보온상자에 (양자갈 돈방) 넣었다가 실시해야 한다.

## 2. 포유자돈의 관리

㉑ 초유는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먹인다. 이는 모돈이 가지고 있는 면역항체를 이행시키고 장내의 태변을 배설시켜 창자를 청결하게 해주며 많은 양의 Vitamin을 공급해 준다.

만약 초유를 먹이지 않고 그냥 포유(양자등)시키면 3~4일 경과후 후구가 약해지고 2일 정도 더 경과되면 거품을 흘리다 폐사된다.

㉒ 분만 즉시 타이로신이나 다른 항생제에 다 설파제를 혼합하여 설사나 위축성비염(AR) 등의 예방으로 비강에 0.5ml 넣어 준다.

㉓ 철분주사 - 모돈의 젖으로 철분공급이 되지 않아 빈혈과 황달증상이 나타나 허약해져 폐사되는 경우가 많아 사료를 섭취할 시기인 10일 경까지 분만후 3일령에 1차, 10일령에 2차로 각각 1ml의 철분을 주사해 주어야 한다.

㉔ 분만후 7일이 되면 처음 먹이를 줘야 한다. 모돈으로부터 받는 영양이 성장에 비해 부족한 상태로 변환되기 쉬운 시기이니 사료(양질)를 주어야 한다. 특히 처음먹이를 줄 때는 돈방이나 보온상자속에 넣어주기만 하면 아무

### 분만 7일후부터는 성장에 비해 모돈으로부터 받는 영양이 적으므로 양질의 사료를 급여해야

효과가 없으니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처음에는 1~2시간정도 관리자가 돈방에 들어가 자돈이 접근하면 손에 찍어서 입속에 넣어 주어 맛을 음미하게 유도해 주어야 한다. 또한 사료에 의한 소화불량성 설사가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많은 양의 소화효소제와 유산균등을 첨가해주고 감미제를 혼합하여 조미를 해 주어야 한다.

㉕ 분만 7일령에 AR(위축성비염) 및 설사에 방으로 항생제나 설파제를 주사해 준다. 설사는 주사보다 먹이는게 더 효과적이다.

㉖ 분만후 14일이 되면 ㉕항과 같이 설사와 AR을 예방해 주고 처음 사료를 교환해 준다.

㉗ 분만후 18~19일이 경과되면 모돈에게 부신피질호르몬제(소론이나 텍사메타손)을 3~5ml 주사해 준다.

이는 모돈이 분만후 20일이 경과되면 외관상으로 잘 안 나타나지만 발정주기가 되어 젖속에 부신피질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자돈의 대사상이상이 생겨 설사를 하게 됨으로 인위적으로 공급해 자돈 설사를 예방해 주어야 한다.

실제 농장에서 대조구와 시험해 본 결과 모돈에 주사한 것은 약 70% 정도 설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행을 하는게 좋다고 판단된다.

㉘ 분만 25일이 되면 이유준비로 낮에는 모돈과 격리시켜 사료량을 많이 섭취하게 하고 모돈의 건유를 돕도록 해야한다.

㉙ 이유하면 분만돈방에서 약 10일정도 순을시키고 모돈에게 이유당일 유방염예방으로 페니실린 400만단위를 주사해 준다. \*